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3.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면 경박하게 살아온 나날이 떠올라 부끄럽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예기치 않은 손님처럼 많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었지만, 어두운 열정에 사로잡힌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일들을 오롯이 주님 앞에 내놓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님, 월드컵의 열기로 지구촌이 뜨겁지만 지구촌 한편에는 가난과 폭력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중한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사랑과 섬김에는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전6:19-20 인도자

♠ 교 독 문 51. 히브리서11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장현애 선생 II. 한상의 장로

응답송 찬양대

찬 송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다함께

성경봉독 I. 히12:1-2 인도자

II. 요일5:1-5 박시내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청파의 전사들 김재흥 목사

II. 세상을 이기는 사람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2.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서의 관대함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다함께 : 아멘. 맡겨주신 소명을 전심을 다해 받들겠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평화의 씨를 심으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힘에 부쳐 비틀거릴 때마다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르는 곳 어디에서나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6월 동호회 모임	에베소서 강해(40)/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윤미경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한지혜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박재실 집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근중	김용길	구명자	최숙화	최영혜
	헌금위원	방문성	김용진	윤주원	김애경	박혜경	문인옥

■ 믿/음/으/로/임/는/글/

내가 목회를 정말 좋아하는 까닭

이제는 정말로 목회를 좋아하게 되었다. 내가 종교에 관한 지적인 물음들에 대해 노심초사하기를 그치고 종교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 이래 설교를 하는 것이 더 스릴 넘치는 일이 된 것 같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우리 시대의 관습과 태도들과 갈등을 빚는다. 따라서 관습적인 세상에서 그 의미를 깊이 숙고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험적인 일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복음과 세상 사이의 갈등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그 둘을 나란히 세워놓는 일이 매우 흥미롭다는 사실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다. 생각들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와서 C 시에 있는 교회에서 몇 달 전에 내가 했던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5년 동안이나 불화했던 어머니와 언니와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소식을 내적인 평정보다는 외적인 평온함으로 받아들였다. 그 메시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승리가 가져다 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여러 달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목회를 좋아하게 된 까닭은 목회가 각자 최선을 다하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다양하게 접촉할 수 있는 황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그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사람들의 편협함에 실망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뭔가 멋진 것이 있다. 특히 그들이 대단한 인내로 슬픔을 견뎌내는 것을 볼 때 그런 느낌은 더욱 강해진다. 자식들을 생각해 술주정뱅이 남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도 잘 키우는 아무개 부인을 보라.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 여인의 조용한 용기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1920)

도전 받고 있는 설교단의 자유

선량한 노인 고든(Gordon)씨께서 오늘 내게 와 아무개 씨가 교회에 출석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전에 내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려

깊게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예배 중에 정치 강의를 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지만, 모든 종교적 문제라는 것이 윤리적 함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적 문제는 결국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비록 나의 설명이 그다지 설득력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고든씨는 내가 “저명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고, “저명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생각도 능력도 내게는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잘 모시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것이 도전 받고 있는 설교단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가끔 아무런 통고도 없이 교회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설교단의 자유 문제는 아주 심각한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자유를 얻는 최고의 길은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날그날 일어나는 생생한 일들에 대해 말할 자유는 그들 두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이리저리 짜맞추어 부드럽게 만들지 않고도, 자칫하면 지루할 수도 있는 설교에 모든 사람—혼란스런 편견을 취함으로써 놓칠 수도 있었던—이 흥미를 가질만한 요소를 부여한다. 그러나 경험 이 일천한 내가 이런 것을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1920)

젊은이들과의 소통

오늘 아침 내가 맡고 있는 젊은이 그룹과 진지한 토론을 했다. 그 동안 내가 그들과 소통하는 데 실패한 것은 내가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임을 어렵잖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모임은 점차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물론 토론이 결길로 가지 않도록 이끄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어떤 때는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적어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내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았다. 공과를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사라졌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리석은 말을 도맡아하면서도 토론을 주도하려고 하는 한 친구이다.(1920)

역시 시원한 웃음의 바람

어느 작은 간이역. 지나가던 기차가 잠시 머물자 승객 하나가 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바깥바람을 쐬다. 그런데 승강장을 지나던 웬 사람이 창 밖으로 내민 승객의 뺨을 후려친다.

“이 망할 요세프 녀석! 한 방 먹어라.”

한마디 내지르고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런데 마른하늘 벼락같은 봉변을 당한 승객은 얻어맞은 뺨을 문지르며 싱글싱글 웃더니 이윽고 더 못참겠다는 듯 소리를 내어 웃어댄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이 자초지종을 다 보았는지라, 뺨을 맞고 웃어대는 까닭을 묻는다.

“뭘가 우스워서 그렇게 웃는 거요?”

“나는 요세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더 분통 터질 노릇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웃고 있다니?

그가 웃는 까닭을 설명한다.

“그래요. 나는 요세프가 아니라 요나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 바보같은 녀석, 결국 헛손질한 셈이지요. 하하하.”

만사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누가 있어 그를 괴롭힐 수 있겠는가?

[김종철·이현주·장희익이 함께 쓴 <<새들은 과외수업을 받지 않는다>>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한완식 임정자 이한림 김명희 김근종 정옥영 백승민 유명숙 배삼순
박시내 박영숙 김훈동 노용래 박창운 허정윤 정복순 박재실 왕성환
강순배

월정헌금:

조항범 오현정 최윤희 김남종 오복순 박준희 이기분 문인옥 임종길
이갑재 송의섭 이봉배 조순덕 노미향 송임희 류건형

감사헌금:

윤정덕 구성실 유증희 송동준 김진경 김윤수 박제림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 극 정현주 김근종 정옥영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오송경	조순덕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이소순	정진경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원	곽혜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진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희우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강순배	오복순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심방	이정은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안홍숙	이영옥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수진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야외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조항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새교우환영회** : 예배 후 우리 교회의 새 교우가 되신 35분을 환영하는 모임이 중고등부실에서 열립니다. 귀한 만남을 아름답게 이어가면서 주님의 손과 발로 성숙해가기를 바랍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에는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귀한 사قم의 시간을 소중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심방** : 가정별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 다메섹속 수요일 - 갈릴리속
5. **출국** : 김성한 장로님과 조영순 권사님께서 키르기스스탄에서 한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년 기한으로 22일 출국하십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6. **구호현금** : 지난 주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드려진 현금 4,772,000원을 <개척자들>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7. **신앙실천** :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비를 잘 하시고, 무더울수록 더욱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 헌화 : 윤석철 장로 (생일 감사)

<새교우 소개>

2623 김병준 소속: 청년부

2624 김성곤 소속: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